

김정일의 리더십

이 종 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일의 통치력은 조직관리 능력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외교분야의 경우 그의 능력은 미지수에 가깝다. 또 사상·경제분야 등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궁극적인 김정일의 통치력 점검은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 자신의 권력기반인 유일체제를 어떻게 재편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

김정일은 누구인가?

김정일, 그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의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 오랫동안 후계자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 '수령'이 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

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칠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좋고 싫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시 못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해야만 하는 실체로서 그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또 그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제 가십성 흥미만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던 때는 지났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를 잘못 알았을 때 잃을 것이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그

* 필자는 성균관대에서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 "북한의 유일체제와 주체사상의 기능" 등 북한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는, 유엔이 인정한 주권국가의 최고지도자이고 남북을 파멸시킬수 있는 군사력을 지닌 일국의 유일 권력자이며 우리가 민족통일을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대좌해야 할 상대방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내려질 수는 없을 것이다.

출생과 성장

김정일은 1942년 2월16일에 태어났다. 올해로 만 52 세가 되는 셈이다. 1912년 생인 그의 부친 김일성과는 30 년의 터울이 있다. 대체로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30 년을 단위로 나누기 마련인데 우연히도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0 년이다. 김정일은 항일유격대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일성부대의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던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만주에서 이동해 간 항일유격대의 병영이 있었던 소련영내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보로시로프 야영이나 주변 병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출생 장소를 백두산 밀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유년시절을 하바로프스크 근처에 있는 비야츠코에 야영에서 보냈다. 해방 후에는 어머니 김정숙을 따라 1945년 11

월 25일 옹기항을 통해서 귀국하였다(山下正子 1990, 72). 귀국후 그는 1948년 남산 인민학교 인민반에 입학하였다. 그는 1949년 9월 어린 나이에 어머니 김정숙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때 그에 게는 경희(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공업 부장)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한국전쟁중 그는 잠시 중국의 길림으로 피난가 있었으며 1952년 11월 그곳으로 옮겨와 있던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일명 만경대혁명학원)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8월 평양으로 돌아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삼석인민학교로 옮겨졌으며 곧 평양제4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 그 뒤 그는 평양 제1초급중학교를 거쳐서 1960년 7월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소년시절 학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은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이 아니다. 그가 이 학교에 재학중이었던 기간은 혼란기였던 한국전쟁 당시 1 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를 전인민군 총참모장 오극렬등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 제1기생이라고까지 주장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일성이 해방 직후 만주와 조선북부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

열사들의 자녀와 기타 항일혁명가의 자녀들을 모아 1947년 10월에 설립한 학교로 당시 김정일의 나이는 만 5 세에 불과 했다.

김정일은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64년 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다. 1964년 3월 18일 발표되었다는 그의 졸업 논문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룬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 었다. 이 논문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지 21년만인 1985년에 「근로자」 3월호에 실렸다.

권력 부상과 후계체제의 구축

대학 졸업후 그가 배속된 곳은 북한권력의 핵심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였다. 그는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에 배치되어 근무했으며 1969년까지 지도원, 과장, 부부장으로 고속 승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의제로 1967년 5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고희 등 당고위간부들을 숙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회의 직후부터 그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다. 김정일 전기가 1969년부터 일부 문학예술인들이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고 불렀다고 할 만큼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사회에서 부각되어 있었다.

1960년대까지 김정일의 업무 영역은 주로 문화예술 분야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서 그는 사상·조직분야 등 당의 핵심 분야로까지 개입의 범위를 넓혀 갔다. 특히 그는 이때부터 주체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주도하였다. 이미 그는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언론들에 의해서 '당'이라는 이름의 호칭으로 지칭되었다. 결국 그는 1973년 9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만 31 세의 나이로 일약 비서국 비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북한권력의 명실상부한 핵심인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1970년대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은 대외적으로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에 이름의 호칭으로 불리워졌다. 특히 그는 후계자로 공인되면서 '당중앙'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영광스러운 당중앙'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대외적

비공개 속에서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당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그리고 이 대회 직후인 1981년 6월부터 그는 공개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언론 매체들이 그를 찬양하는데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공개적인 후계체제의 공고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김일성 대신에 현지지도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대중들에게 그의 저작을 '수령'인 김일성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김정일은 '수령'인 김일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 수령의 지위를 하나씩 이양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1991년 12월에 1950년 7월 이래 김일성이 맡아왔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93년 4월에는 군사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김정일의 리더십1 : 조직, 사상, 외교 분야

리더십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가십성 관심들

김정일은 지금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수령'의 자리에 올라 있다. 북한 이론가들은 이 '수령'을 "위대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지고의 인격자"라고 한다. 이 표현대로라면 김정일은 완벽한 통치력을 소유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밖을 벗어나서 이 표현과 김정일을 일치시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오히려 거꾸로 그의 능력을 의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연 그는 어느 정도의 통치력을 소유한 인물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리더십을 매우 취약하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 근거는 대개 소문으로 퍼져 있는 김정일의 '괴팍한 성격'이나 '문란한 사생활' 등을 들어 지도자로서의 그의 자질 자체를 부정하는 데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소문 자체를 받아들일 경우, 도

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과격한 성격'이나 '문란한 사생활' 등이 지도력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 중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역대 지도자들 중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소문났던 지도력이 탁월한 인물이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에 유포된 소문의 진실 여부다. 사실 그것들 중 검증된 것은 별로 없다. 김정일이 '통'이 크고, 사생활에서 즉흥적인 면이 있으며,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별스런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졌다. 더 깊숙한 문제들은 실제로 알기도 어렵다. 외부인사 중 김정일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그의 사택까지 방문하여 부인과 자녀들도 만나보았으며 김정일이 주최한 파티의 단골 초대손님이었던 최은희·신상옥부부는 두 권의 수기를 내면서도 김정일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듯 회화화(戲畵化)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김정일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이성적인 안목에서 김정일에 접근할 때다. 우리가 김정일의 지도력을 현 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지난 20년간 후계자로서 왕성히 활동했으나 외부로는 그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로서 지도력 수업을 받아 왔다. 그는 일찍이 대학 졸업후 김일성을 밑착 수행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과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1964~66년의 3년간 김일성의 현지 지도에 31 회나 동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쌓았다. 그뒤 그는 1960년대 말 문학예술, 1970년대 초 사상, 1970년대 중반 경제, 1970년대 말 군사, 1980년대 초 외교·민생 등으로 지도영역을 확장해 오면서 통치술을 연마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쌓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통치력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직, 사상, 외교,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 기존의 김정일 정책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개략적이거나 그의 통치력 수준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안정적인 人事管理

흔히 김정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격적이고 변화가 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에

게조차 그는 대단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수행자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의 조직관리 능력도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물론 김정일이 어느 정도의 조직관리 능력을 지녔는지, 또 어떤 스타일의 관리 행태를 보일지는 앞으로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김정일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김일성 주석과 인사권을 공유하던 시대였던 1980년대 이후 북한 권력 구조의 변동 상황을 정밀분석해 보면 그의 조직관리 능력과 인사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적지 않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그가 인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차라리 보수적이라고 할 만큼 신중한 것이었다. 조선노동당 6차대회가 열린 1980년 10월부터 따지면 그가 후계자로 공개된 지 14년이 지났고, 이 정도 기간이면 권력 주변에서 눈에 나는 인물도 있게 마련인데 놀랍게도 이 14년 동안 북한 권력 구조내 인물 변화는 아주 적었다. 주요 간부들이 권력블럭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선노동당 6차대회에서 선출된 19명의 정치국 정위원(통일원 1988, 98) 중 김일, 최현, 오백룡 등 사망한 항일유격대 출신 혁명원로 6명을 제외한 13명 중 김정일, 오진우, 이종옥, 박성철, 김

영남, 계응태, 강성산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며 자강도당 책임비서 연형묵은 후보위원이다. 나머지 탈락자 5명도 김중린은 당비서, 김환은 정무원 부총리겸 화학공업부장, 백학림은 당군사위원 겸 사회안전부장, 오극렬은 당 작전부장, 전문섭은 국가검열위원장으로 존재하다.

김정일이 직접 관장해 온 비서국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6차대회에서 뽑힌 김일성의 비서국 성원 9명(통일원 1988, 98) 중 김정일, 황장엽, 김중린 등 3명만이 남아 있고 모두 교체되었지만, 탈락자 6명 중 박수동은 사망하였고 2명은 김환·연형묵이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중 김영남은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윤기복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경제정책 위원장으로 있다. 유일하게 홍시학만이 1992년에 부총리에서 해임된 뒤 보이지 않고 있다. 계응태·전병호·한성룡·최태복·김용순 등 새로 뽑힌 사람들 중에도 파격적인 등용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당·정에서 기량을 닦아 온 사람들이다.

군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6차대회에서 뽑힌 김일성 외 18명의 위원(통일원 1988, 98) 중 최현·오백룡 등 4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14명 중 9명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며 나머지 5명 중 2명은

전문섭·오극렬이며 김철만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최상욱과 김강환만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병이나 업무상 징계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미출현은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0년 11월 5차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위원회 정위원 10 명(「로동신문」, 1970. 11. 14) 중 6차당대회에서 탈락한 자는 4 명이었는데 그중 최용건·한익수는 사망이었고 김영주는 병 때문이었다.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숙청된 이는 1976년 6월에 김정일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다 1977년 10월경에 숙청된 김동규뿐이었다. 이 숙청은 북한 역사에서 현재까지 지도부내 마지막 정치적 숙청으로 기록되고 있다.

보직순환 성격면 要職移動

이처럼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뒤 이루어진 북한권부에서의 인물 이동은 대단히 안정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김정일이 권력 핵심으로 부상하던 1967~1970년 사이의 격렬했던 권력변동 시기와 김정일 후계 체제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이후 시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정

적 시기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1966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제2차대표자회에서 구성된 정치위원회 정위원 11 명(「로동신문」, 1966. 10. 13) 중 제5차당대회에서 탈락된 자가 6 명이었고 비서국은 10 명 중 7 명이었다. 물론 이들 탈락자들은 예외없이 1967~70년 사이에 숙청되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김정일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권력 구조가 현저하게 안정을 보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사실은 1967~1970년에 있었던 정치적 격동을 거치면서 북한 지도부가 철저하게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그 맹세는 20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이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세평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사에 상당히 신중한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일은 적어도 지난 14 년 동안 권력 핵심부 내에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인사정책을 써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일 후계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지도부의 인사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정치적 숙청이 사라지고

대신 정책 부진에 따른 경질이 늘어난 것이다. 그 이전 시대에는 특정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으레 숙청으로 보았고 또 그러한 관측은 대개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김정일 후계체제 시대,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고위직 인사도 단순 경질과 보직순환의 성격으로 변화였다. 특히 북한정치가 안정되고 지도부의 중요관심이 정치에서 경제로 이전 되어서인지 정책부진에 따른 경질이 자주 일어났다. 따라서 경질된 인사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주요 보직을 맡거나 곧 컴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김정일이 조직관리의 핵심인 최고지도부 인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의외로 안정적이다. 아마 이러한 안정성은 그의 조직관리 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도력의 왜곡된 발휘 : 사상 분야

사상 분야는 김정일의 특기 분야이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사상 이론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객관적인 분석가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분야에서의 그의 지도력만큼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도 별로 없다. 그가 사상 분야에서 주체 사상의 이론적 체계화와 유일사상 체

계를 주도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 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절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60년대초 중반에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소박한 정식화 속에 등장한 주체사상을 김일성 개인의 사상으로 틀지우고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새로운 사상이론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절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1973년부터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든 사상·이론·방법을 담은 김일성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 유포시키기도 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과는 별도로 1960년대 말부터 양형섭·황장엽 등 당 이론가들을 동원하여 왜 유일 지도자로서 '수령'이 필요한지를 밝힌 '혁명적 수령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자신의 후계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 후계자의 덕목은 무엇이며 그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자신을 모델로 해서 밝힌 '후계자론'을 만들어냈다. 또 1986년에는 '수령', 당, 대중이 '수령'을 뇌수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체이며 이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새로운 논리적 틀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이 밖에도 오직 '수령' 김일성에게만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생활화하는 유일사상 체계 확립도 주도하였다. 그 결과 그는 1974년에 주체사상과 개인숭배, 절대권력 체제를 결합시켜 교의화한 '유일사상 10 대 원칙'을 만들었다(김정일 1987, 101~124). 그리고 그는 1980년대 말부터 속출하고 있는 몰락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김정일은 실적으로만 보면 사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과 지도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의 실적들 중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이 방면에서의 그의 능력이 대단히 왜곡되어 발휘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그가 체계화시켰다고 자랑하는 주체사상은 실제로 지나친 절대화 속에서 이론이 현실을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러 오히려 북한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으며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민주주의의 발양을 억압하고 북한사회에 시대착오적인 봉건가속국가 시대의 문화를 재생시킨 주범이 되고 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에도 민족에 대한 주관주의와 독선적 태도가 스며 있다.

이렇듯 북한의 자랑과는 달리 사상 분야에서 김정일의 통치력은 매우 부정적으로 발휘되어 왔다. 결국 사상 분야에서의 그의 사업 스타일이 오늘의 북한 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김정일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해 온 왜곡된 정책을 고치고 새로운 사상정책을 펴 나갈 것이 당면 과제로 부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행되지 않은 외교 능력

김정일의 지도력 분야 중 흔히 서방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이 외교 능력이다. 그러나 외교 분야의 모든 곳에서 그의 능력이 의문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적어도 외교정책 결정이나 외교적 안목에서는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2~83년경부터 외교 문제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외교정책 결정영역에서는 충분한 수업을 쌓아왔다. 최근 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미국·북한 간의 협상을 보면 그의 외교정책 결정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도자의 주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 대외적 안목에서도 그렇게 뒤떨어진

것 같지 않다. 혹자는 그의 외국방문 횟수가 적고 외국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서방의 이미지가 굴절되어 자리잡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증언자들에 따르면 그는 집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거의 매일 한국, 일본, 중국의 TV를 보며 서방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일은 외국 수반등과의 협상 영역에서는 수업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가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도 1983년 6월 당시 중국공산당 호요방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도뿐이다. 김주석이 후계체제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 1986년 5월이었다. 추측컨대 김주석이 그뒤 점차 김정일에게 외교사절과의 회담 기회를 넓혀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몰아닥친 사회주의권 몰락 때문에 전반적인 권력 이양 프로그램이 조정되면서 김정일은 국가수반이 익혀야 할 외교교섭 능력을 제대로 수업받을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따라서 그의 未知의 외교 능력은 이제 실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김정일의 리더십2 : 경제 분야

속도전적 경제방식과 시행착오

김일성은 생전에 외국 손님들에게 북한 의 자랑으로 '주체의 확립'을 즐겨 들었다. 바로 이 주체 확립의 경제적 표현이 '자력갱생'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 구조가 '자립적 민족경제' 체제이다. 그런데 김일성의 자랑과는 달리 오늘날 이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1958년에 자동차를 자체생산한 북한이 1984년부터 '의식주'라는 말을 '식의주'로 고치면서 먹는 문제에 매달리게 될 만큼 북한경제는 난관에 처해 있다.

과연 김정일이 이 경제적 난관을 돌파해 나갈 능력이 있을까? 즉, 김정일의 경제 방면에서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북한경제에 개입해 온 역사와 그 특징·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일이 북한경제에 개입한 것은 이론 문제부터였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당시 북한 학계의 통설이었던 균형 발전론을 비판하면서 속도를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오르고 규모가 커지면 발전 속도가 떨어진다는 균형론에

대해서 김정일은 주체적 요인을 강조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가져올 빠른 발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사상론적 경제방식은 1974년 10월부터 벌어진 '70일 전투'를 통해서 최초로 실물 경제에 적용되었다. 이때 그는 빠른 발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선동대를 조직하여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일을 해내는 '속도전'을 경제에 도입하였다.

그런데 속도전의 기본 양식은 인간의 사상을 최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경제방식이다. 따라서 속도전은 사상의 조작·동원화, 인간의 동원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징인 유일체제의 작동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결국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원적 성격 속에서 내포적 발전의 필수요인인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경공업 분야에서의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기술의 저발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과도한 사상 동원을 통한 경제 방식이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용

속도전적 경제방식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김정일의 경제 인식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1980년대부터 속도전적 경제방식에 실용주의적 측면들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여전히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내세웠으나 다른 한편,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경공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자력갱생의 기치 속에 비판적으로 보던 중국의 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제통인 강성산을 정무원총리로 기용하면서 1984년 9월에 외국기업과의 합작 관련 조항을 규정해 놓은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3년 10월에 「합작법」을 제정하고 1994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가 보다 유리하도록 「합영법」을 개정하는 한편,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외국기업과의 합작과 자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김정일의 실용주의적 경제관로의 선회 조짐은 최근에 그가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는 1991년 10월 전국과학자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자공학, 기계공학분야 등 과학 전문분야에

서의 빠른 발전을 강조하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충실성과 혁명적열정”만 가지고는 안되며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최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합작의 조직을 강조하였다(김정일 1992, 415). 이는 김정일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 밖에도 어려운 연구 환경을 사상 의식으로 극복하고 “혁명적 조직 생활의 강화”를 제창했던 초기와는 달리 과학자·기술자들의 연구조건 보장이 과학연구 활동의 전제라고 강조했으며 그들을 연구사업 밖의 일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김정일의 경제 관점은 경제 저발전애 직면하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변화는 북한 경제정책이 김일성의 사망과 관계없이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케 해 준다.

그러나 김정일의 경제방식은 아직도 교조적 사상론과 실용주의가 뒤섞여 있다. 현재 김정일의 경제정책은 사상·정치우선 관점에서 경제자체의 논리를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전환중에 있으며

현재는 이 둘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속도전적 경제방식이 전자라면, 확고하게 굳어진 개방정책이 후자가 된다. 그것은 마치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동시 점령”이라는 오래된 북한의 표어를 연상시키지만 이제 그는 지나친 사상 중심의 경제방식이 결국 “물질적 요새의 점령”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속도전적 경제방식의 일방적 강조보다는 대중의 창의성을 증대시키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인민생활의 빠른 안정과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개발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그가 속도전적 사고를 씻어내고 대중적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방식을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얼마만큼이나 무리없이 북한경제를 개방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경제 분야에서 그의 새로운 지도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김정일 리더십의 향후 과제

현재 수준에서 김정일의 통치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조직관리 능력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분야의 경우 그의 능력은 아

직 미지수에 가깝다. 또 사상·경제 분야 등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견해와 소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정책은 대단히 主意主義의이며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제 사상보다 현실에 기초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김정일의 통치력을 어떻게 평가하건 지금까지의 김정일의 지도가 김일성의 후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 모든 분야에서 그의 통치력은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아마 그 시험대에 가장 먼저 올라서 있는 분야가 현안이 되어 있는 핵사찰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문제, 그리고 경제난관 타개책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김정일의 통치력 점검은 이미 비효율성이 누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자신의 권력기반인 유일체제를 어떻게 재편해 나갈수 있는가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일체제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비민주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사회의 '수령'을 향한 극단적인 구심화를 전제로 하는 이론 자체가 이미 이 체제의 비민주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체제의 기본특징으로 나타나는 개인숭배의 만연과 사회의

동원화등은 유일체제가 비민주적이며 기제적 집단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체제는 최고지도자의 유고시(有故時) 체제 불안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유일체제가 권력교체 과정에서 체제의 연속적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수령'을 보좌하며 지도자 수업을 받아온 후계자의 존재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 김정일이라는 20 년간 준비되어 온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사회는 체제의 안정적 연속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후계자가 '수령'이 되고 미처 새로운 후계자를 선정하고 그가 새로운 후계체제를 장악하기 전에 '수령'이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실례로 김정일이 '수령'이 되고 또 다른 후계자의 등장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김정일이 만약 건강 이상으로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구심력의 정점이 공동화(空洞化) 되면서 엄청난 체제 동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유일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효율적인 체제다. 이 체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이 체제는 정치적 목표에 경제의 합

리성을 종속시키면서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투자 순위를 왜곡시켜 왔다. 지금까지 북한 사회가 최고지도자의 위신과 국가의 자주성과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건축물조성이나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온 것이 그 좋은 예다. 1980년대에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된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의 건립이나 1989년에 있었던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의 유치 등은 경제의 합리성을 무시한 국가투자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중후반부터 가속화된 극단적인 개인숭배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에의 잦은 대규모 군중동원 역시 유일체제의 유지강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경제의 논리가 배제된 동원화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의 정치적 목표에의 종속' 행위는 결국 오늘날 북한 경제의 침체를 낳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유일체제는 그 속성상 창의력을 고갈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질적 상승을 의미하는 내포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유일체제하의 경제방식은 사상 동원과 동원화된 사회 체계에 기초한 속도전적 방식이다. 그러나 이 속도전의 기초인 '사상론'과 동원화는 기본적으로 생산력 발전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는 데는 명백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산력이 발전하는 데는 양적 발전(외연적발전)과 질적 발전(내포적발전)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여기서 한 사회가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는 주로 외연적 발전이 추구되지만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외연적 발전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포적 발전이 요구된다. 이때 내포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높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이다.

그런데 '사상론'이나 동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상대적으로 외연적 발전에 알맞는 경제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적 발전 단계에서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여전히 생산력 발전 문제를 정치사업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중의 개성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기술혁신을 부차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사상론'이나 동원화가 고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보다는 집단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산술적 증산에 더 알맞은 데 연유한다.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속도전적 경제방식은 산술적 증산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 경제방식은 개성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이다. 때때로 이 방식은 열악한 연구조건을 인간의 사상의지로서

극복하기를 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가능케 할 기술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속도전적 경제방식의 한계가 오늘날 북한 경제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유일체제는 개방이라는 북한경제의 당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상부 구조로서 적합하지 않다. 북한 유일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원성이다. 이러한 체제의 일원성은 개방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다원적 요소의 유입과 유일체제의 유일성과의 마찰 가능성을 예상케 해준다. 시장경제와 함께 유입되어 들어오는 다원적 요소의 사회내 침투는 강력한 일원적 성격을 지닌 사회체제와 긴장상태를 유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긴장상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체제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바로 이상에서 설명한 비효율성 때문에 유일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일체제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만약 김정일 지도부가 이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의 통치력 여부와 관계없이 체제 붕괴는 필연적이다. 결국 김정일은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현재의 유일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기초가 되어준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점에 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밖의 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의 진정한 통치력의 시험대는 체제재편 능력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토통일원. 1988.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1-4집.
 김정일. 198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山下正子. 1990. 炎の女性 - 金正淑女史の生涯とその業積. 東京: 雄山閣出版社.